

영원을 삽니다

We Live the Eternal

전도서 3:10-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1월 25일 설교

내가 보니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고생하라고 노고를 주시고, 모든 것을 제 때에 어울리게 지으시고,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에 영원까지 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구나.

초능력 인간

초능력이 뭔지 아시지요? 남들은 갖지 못한, 아니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누가 손가락을 손에 올리고 살살 움직이니까 손가락이 휩니다. 보통 눈속임이라 합니다만 만약 진짜라면 그건 초능력이지요.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은 절대 알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인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남의 마음을 꿰뚫는 무슨 비밀 주파수 같은 게 있는지 척척 알아냅니다. 섬뜩하지요? 여긴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차에 깔리니까 차를 번쩍 들어 올리고 아들을 꺼냈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일을 정말 했다면 그건 초능력이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일이다,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초능력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은 못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음감이라는 게 있지요. 만 명에 한 명 꼴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소리만 들으면 그게 어느 음인지 바로 압니다. 마치 보통 사람이 색깔을 보고 빨강다 노랑다 금방 아는 것처럼 소리가 그렇게 구분이 되는 모양입니다. 계산을 기막히게 잘 하는 아이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나 책을 아예 사진을 찍는 것처럼 외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못 가진 우리는 그냥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지요.

사실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누구든 이런 초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보라고 있는 게 눈 아십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건 못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퀴리부인이 엑스선을 발견했습니다. 맨눈으로 안 보이는데 사진을 찍으면 사람 몸을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이라는 것도 참 대단하지요. 눈에는 안 보이는 빛인데 열을 재어 그런 게 있는 줄 압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귀에 안 들리는 소리도 지금은 기계를 이용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귀의 능력을 뛰어넘은 거지요.

사람의 능력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 좀 웃기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뛰어넘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몰랐을 따름이지요. 아니, 알긴 알았지만 그걸 초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은 공간과 시간에 갇혀 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안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좀 가까이 앉은 사람, 좀 멀리 앉은 사람, 이 건물 바깥에 있는 사람, 이렇게 멀고 가까운 것을 느끼는 게 공간 감각이지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가까이는 금방 가지만 멀리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미국 동부에 있는데 대서양을 건너면 유럽에도 가고 반대로 미국 대륙 가로 질러 태평양을 건너면 조국 한국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구 아닙니까? 지구는 또 태양계의 일부입니다. 태양계는 또 우리 은하라는 은하에 속했지요. 이 은하 밖에도 은하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별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하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라고요? 백억 개 쯤 된다 합니다. 그런 은하가 우주에 약 백억 개가 있다 하니 별이 몇 개인지는 계산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로 만족을 못 하고 그걸 넘어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다일까 묻습니다. 이게 다라면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겠지요? 혹시 눈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우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무한이지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감도 안 오는 그런 생각을 사람은 합니

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다고 우주의 끝, 우주의 바깥을 논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공 모양이라 할 때 반지름이 약 오십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오십억 년을 달려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먼 은하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인간이 다녀온 가장 먼 거리가 달인데 빛이 일초 조금 더 가면 달은 거리입니다. 우주 끝까지는 얼마나 가야 된다고요? 삼 초면 달까지 왕복할 수 있는 빛이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일 년도 아니고 오십억 년을 가야 됩니다. 사람이 안 탄 우주선 가운데 보이며 일호가 가장 멀리 갔는데 지금까지 삼십오 년 동안 달린 거리가 육백 분의 일 광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삼조분의 일을 갔습니다. 우주가 이 지구 크기라면 우리는 1/500밀리미터, 그러니까 아직 종이 한 장 두께의 오십 분의 일밖에 못 가 보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벌써 저 아득한 곳에 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먼 은하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사람은 유한한 세계를 살면서 무한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를 셀 때 일, 이, 삼, 사, 이렇게 수를 더해 가다가 갑자기 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수는 끝이 있을까? 있다면 뛩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눈에 보이는 건 한계가 있는데 마음은 언제나 그걸 넘어갑니다. 무한이지요. 숫자 팔을 뉘어놓은 겁니다.

뛰어넘는 이런 능력은 자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같은 아주 높은 산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높구나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크기가 크다는 것과는 다른, 이를테면 경외감 같은 어떤 느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는 거지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높은 산에는 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산 자체가 신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는 함부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건데, 공간적으로 약간 다른 건데, 그 다른 것 때문에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엔젤폭포는 높이가 일 킬로미터 가까이 됩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 높이만 팔백 미터입니다. 엄청나지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크기가 엄청난 경우에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폭이 다른 것보다 몇 배가 크고 쏟아지는 물의 양도 산수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 산수를 뛰어넘어 어떤 신비한 느낌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볼 때도 그냥 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게 있습니다. 크기가 다를 뿐인데 느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데도 그걸 넘어 무한의 세계로 갑니다. 산도, 폭포도, 수학도, 밤하늘의 별도, 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뛰어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안 죽으려고

이렇게 주어진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성경은 영원이라 부릅니다. 뛰어넘는 능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에 갇혀 삽니다. 어느 순간에 태어나 일정 기간 살다가 갑니다. 길어야 백 년이지요. 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시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났으니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시간 속을 사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거라고는 좀 오래 사는 거지요. 서양의 옛 신화가 생각한 한계는 천 년입니다. 쿠마의 무녀 이야기에 나오지요. 우리는 좀 소박해서 오백년입니다. 한오백년 살자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안 죽으려고 불사초, 불로초를 찾아 해맨 진사항입니다. 중국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대단한 사람이지요. 열세 살에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왕이 되고 마흔이 되기도 전에 중국대륙을 통일했는데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안 죽는 방법, 안 늙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오십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수은중독입니다. 당시 사이비 과학자들이 안 늙는 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수은입니다. 이걸 아주 조금 쓰면 얼굴이 팽팽해지고 활기가 나니까 이걸 계속 쓰면 안 늙고 건강을 유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은을 꾸준히 먹은 덕에 마흔 아홉에 수은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안 쳤더라면 조금 더 살았을 것도 같지요?

영원을 꿈꾸며

사람은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시간의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을 느끼는 건데 이건 자유입니다.

시간은 기본적으로 현재입니다. 현재 말고는 없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백 년도 못 사는 인간이 우주의 역사가 오십 억 년이다 어떻다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보이지 호를 타고 달려도 일 광년은 커녕 광일만큼도 못 가면서 생각은 얼마든지 뻗어갑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원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통합니다. 영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 90:4).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만 천 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찰나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벧후 3:8). 하나님의 시간은 고무줄 시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데 그걸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표현할 길이 없어 이렇게 비교해 표현한 겁니다. 그런 양적인 차이를 계기로 삼아 뛰어넘으라는 거지요.

죄에 찌든 인생

영원을 꿈꾼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로 간다는 건데, 안 죽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초월하는 게 아니지요.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가려면 시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인생은 끝이 있는 인생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을 안 죽으려 발버둥 쳐 얻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이 인생이 머지않아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생하라고 노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월의 능력을 그 능력을 주신 뜻에 맞게 써야 됩니다.

좋은 보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뭐 수억 마리 잡았겠습니까? 수백 마리 잡았겠지요. 그저 좀 많은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밤새 허탕을 친 다음이니깐 좀 더 짜릿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뛰어넘었습니다. 수가 좀 많은 것과는 다른 걸 느꼈습니다. 나도 평소에는 수십 마리 잡습니다. 수백 마리 해야 겨우 열 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수백을 넘어 무한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아래 엎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이 다 그렇게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직접 보고도 영원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시간 안에 공간 안에 갇혀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만 했습니다.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홉 명은 대단한 능력이다, 야, 병이 나았다, 좋았겠지만 한 명은 초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예수께 엎드렸습니다.

영원의 길목

우리는 다 영원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 앞에서, 어마어마한 폭포 앞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등산 아무리 다니고 여름 내내 요트에 동등 떠 살아도 무한을 못 깨닫습니다. 천문학 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지요? 모든 걸 때에 맞게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운 인생도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뛰어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뛰어넘으려 애만 쓰고 결국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영원한 저주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영원을 두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영원을 바라기는 하면서도 얻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가져온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참 영원에 오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인생을 무한히 사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한 다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돌아온 그 문둥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영원으로 가는 초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초월의 능력, 곧 영원을 제대로 쓰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을 누리며

예수 믿는 삶은 초월해 사는 삶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을 살면서 그걸 뛰어넘어 사는 삶입니다. 길이란 마냥 길게 늘이는 게 아니라 아예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사실 부활 이후에 가능하겠

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고생이 없는 영원의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영원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며 삽니다. 거듭난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삶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영원의 세계를 삽니다.

죄가 주는 고통을 여전히 맛보고 살면서 어떻게 영원을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현재를 잘 살면 됩니다. 이건 다음에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영원에서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모든 것이 오늘입니다. 영원을 사는 것은 곧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를 강조합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말 속에 담겼습니다. 항상은 말 그대로 늘 그대로입니다. 늘 지금입니다.

항상 뭘 합니까? 항상 기도하지요. 항상 기뻐하지요. 항상 감사하지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공간도 초월합니다. 산이나 폭포에 가면 경외감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초월의 능력을 잘못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을 높이는데 쓰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게 바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 몸담고 사는 세상은 죄가 망쳐놓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걸 뛰어넘어 영원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영생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복입니다. (권수경 목사)